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06 칼럼 한 편의 시(詩), 삶의 힘이 되어
20 특집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즐거운 유아교육

vol. 98
2018. 12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04 신년사_ 교육감 인사말
- 05 역점 사업_ 2019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역점 사업
- 06 칼럼_ 한 편의 시(詩), 삶의 힘이 되어
- 07 독서감상문_ 최우수상 수상작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 14 경북대구교육청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맞손
- 15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기술인재 양성
- 18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 19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교육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

- 08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자유학기제)
- 09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수업 나눔 축제)
- 10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활동
- 11 학교와 동아리 중심의 예술교육
- 12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공동체
- 13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최해수(공보관) 김현광(홍보담당 장학관)
 기획 강호림(공보관 장학사)

편집위원
 김혜은(화동초 유치원교사) 이성은(동명초 교사) 이왕걸(다산초 교사)
 조진숙(경북외고 교사) 정선용(공보관 주무관) 차민서(동산여중 교사)
 최현기(형곡초 교사) 한지영(약목초 보건교사) 홍경애(영일도서관 사서)

표지설명
 구미 사곡고등학교 2018 경상북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사진: 최민성 선생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 20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즐거운 유아교육
- 22 장애 공감으로 담아낸 세상풍경
- 23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

- 24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복지 실현
- 25 안전하고 감성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요
- 26 신도청 지역 학부모와 함께한 시간
- 27 경북교육과 함께하는 교육위원회

따뜻한 경북교육

- 29 교단일기
- 30 제44회 경상북도교육상
- 31 2018년 하반기 주요 성과
- 32 표준업무매뉴얼

제99호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 원고 및 청소년리포트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관별 우수교육 사례, 학교소식, 미담, 교직원 및 학부모 글, 그림, 사진 등
 이메일 hrwood73@gyo6.net 밴드 경상북도교육청학생기자단
 TEL. 054-805-3062 FAX. 054-805-3059

※경북교육소식지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홍보마당-경북교육소식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사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오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햇살 같은 희망과 큰 행복이
온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새로운 경북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정하고
앞으로 4년간의 발전 계획도 세우며
미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새해에는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겠습니다.

이제 희망찬 경북교육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교육 가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기해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감 



2019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역점 사업

1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 교육안전과, 교육복지과 신설
- 종합안전체험관(2곳) 구축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 '19년 지진대비 내진보강공사 2,460동 중 53%, '24년 완료
- '19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미세먼지 저감장치 보급
- '19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목표율 82%

2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 창의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인성프로그램 개발, 시울림 학교 운영, 도전성취프로그램 운영
-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수학문화관, 경북메이커센터, 발명체험관 구축

3

학교자율경영 체제 보장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현장과 소통 강화
-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배분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 행복학교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한 편의 시(詩), 삶의 힘이 되어

『대구일보』2018. 12. 06. 칼럼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김남조 시인의 “편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다. 2006년 필적확인 문구란이 첫 도입되었을 때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 첫 구절인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 제시되었다. 작년에는 김영랑 시인의 “바다로 가자”의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라는 구절이, 그리고 2017년에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한 구절인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라는 구절이 제시되었다.

필적확인문구는 매년 수능 출제위원들이 정한다고 한다. 문구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필적을 확인하는 기술적인 요소가 충분히 담긴 문장들 중에서 수험생들에게 편안함과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으로 선택한다고 한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는 문구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들 또한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자세를 가다듬었을 것이다.

한 편의 시, 한 구절의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똑같은 조건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한 식물에게는 매일 좋은 말과 칭찬을 해주고, 다른 식물에게는 나쁜 말과 비난을 한 후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말을 들은 식물은 잘 자랐지만 나쁜 말을 들은 식물은 차츰 시들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실험 결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밥과 물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비슷하였다고 한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지닌 우리 아이들이야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다 보면 고운 심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학생들이 시낭송을 통해 표현력 및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꿀 수 있도록 ‘시올림’이 있는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편 이상의 시를 암송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모아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고, 학교별로 시 낭송 행사도 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국어·수학·영어 등 다양한 과목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따뜻한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서 순화와 심성 계발, 감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자는 시경에서 ‘사무사(思無邪)’라 하여, 시 300여 편을 읽으면 마음에 사악함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21세기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에도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시 수첩’숙제가 13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해마다 10편에서 15편의 시를 암송하고 ‘시 수첩’에 암송할 시를 적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외우고 익힌 생각하기 훈련이 프랑스 대입 논술 ‘바칼로레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를 암송하고 자라기 때문에 영국인들 치고 셰익스피어의 시 몇 구절 외우지 못한 이들이 없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외운 한 편의 시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운 문제와 힘든 시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최소한 올 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 구절을 평생 기억하며 힘든 날을 잘 극복할 거라 믿는다.

마음의 담도 허물어요

구미봉곡초등학교 5학년 2반 정수민

우리 아파트에는 높은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사람들도 우리 아파트를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절대딱지에는 아파트에 커다란 담을 세웁니다. 담을 지나다니려면 출입딱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은아파트 아이들은 먼 길로 돌아 다녔지요. 같은 이웃주민인데 자신들의 아파트에 맘대로 들어온다는 이유때문에 그 커다란 벽을 세운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용서받기는 힘듭니다.

전학 온 성화는 착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습니다. 선표는 성화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막는 바람에 놀지 못했지요. 혁우도 정은아파트 아이들과 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혁우와 성화가 같이 과학경진대회에 나가게 되자 처음엔 내키지 않아하던 혁우도 성화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이들은 차별의 증표인 뒷문 출입딱지를 사용하여 딱지치기를 하며 놀입니다. 선표가 뒷문 출입딱지를 들고 딱! 내리치는 모습은 제 속이 뺨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차별받거나 소외받거나,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평등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차별을 할까요? 바로 남들과 다르다고 남들이 차별하니깐 차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서로가 같다면 세상은 항상 같은 곳 같은 속도,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가 다르기에 더욱 아름다워 지는 것입니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당당하던 성화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어른들에게 성화처럼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명 한 명이 마음에 쌓은 담부터 허물어서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타인에게 배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진화,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는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



황금시대 방송국 체험 (영주 영광여중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자유학기제란?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제도이다. 진로 체험을 통해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진로탐색 활동, 생생한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생 중심 수업,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활동,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는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년차, 성과는?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입시를 위해 지식·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으로 교실에서 구현되는 과거의 교육은 학생의 삶과 괴리되어 학교를 재미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학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내면의 자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흥미와 적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자아를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열정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멋진 활동을 이끌었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KEDI, 2017)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교사의 수업 운영의 다양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진화,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

경상북도교육청은 2019-2022 경북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개척학기제, 도전학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척학기제’란 ‘자유학기제 활동 및 체험의 연장을 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탐색 및 진로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기’를, ‘도전학기제’란 ‘자유학기제와 고교 연장 운영을 위해 대학, 산업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일정 기간 직업 및 학과를 체험하는 학기’를 말한다.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는 2019년 연구 단계를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과감한 도전,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면,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는 이를 위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을 열어주는 교육, 개척학기제와 도전학기제를 통해 미래 교육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018년 11월 23일, 24일 양일간 경주 하이코에서 2018 수업 나눔 축제가 열렸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배우다! 행복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수업 나눔 축제는, 지난 해 실시하였던 교육연구동아리 발표회, 교과교육연구회 나눔 콘서트, 교육과정 선도학교 컨퍼런스 및 수업 공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 업무를 경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교육과정 선도학교, 교사연구회 등의 운영 사례 나눔, 다양한 수업 관련 부스 체험, 교실 수업 이야기 이그나이트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경북 교육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배우다!
행복을 채우다!

2018 수업 나눔 축제

...수업 나눔 축제 인사이드 ...



펼쳐가는 배움의 장! 수업 콘서트관

수업 콘서트관에서는 행복한 시 낭송회, 교과교육연구회 콘서트, 창조학교 오픈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교실 수업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그나이트 방식(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 단위로 자동으로 넘기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교실 수업 이야기 이그나이트 대회는 교육 현장과 관련된 진솔한 이야기를 펼쳐가는 진정한 배움의 장이었다. 관람 교원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발표자로 선정된 기북초등학교 김명섭 교사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의 교실 수업을 돌아볼 수 있었고 다른 발표자들과 소통하며 교사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과정 선도학교 전시관의 체험 부스



수업 콘서트관의 수업 이야기 대회

소통하는 화합의 장! 교육과정 선도학교 전시관

교육과정 선도학교 전시관에서는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 교육과정 선도학교 리닝 페어, 자율재능학교 재능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명품학교로서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에 참여한 왜관초등학교 김재환 교사는 “1년간 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루어낸 성과들을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오르는 열정의 장! 교원학습공동체 나눔관

교원학습공동체 나눔관에서는 교사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사례 나눔, 교과교육연구회 콘서트, 작품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1개 연구회(동아리)와 15개 교과교육연구회의 눈부신 운영 성과가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이끌어가는 경북 교육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활동 중심 인성수업을 주제로 운영 사례 나눔에 참가한 연리지 인성교육연구회 회장 양만주 교사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을 보니 나도 교사로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소감을 밝혔다.



교원학습공동체 나눔관의 체험 부스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 교육을 실현합니다.

감동의 두드림! 행복한 어울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은 2010년 3월에 설립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문화예술적 감성을 지닌 행복한 인재 육성을 지표로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 꿈과 끼를 발휘하는 축제 문화 선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 환경 조성 등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향연!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청송 현서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총 8회에 걸쳐 실시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는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기획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 자랑하는 행사이다. 오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화, 토탈공예, K-pop댄스, 도예, 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행복콘서트를 여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참가한 모든 주체들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의 학생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은 1일문화예술학교, 방과후학생동아리, 토요일문화예술교실, 교직원문화예술동아리, 방학중문화예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 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청송 현서중고)

학교와 동아리 중심의 예술교육, 「형곡 엘시스테마」가 만들어갑니다.



2018년 형곡 엘시스테마 정기 연주회

형곡초등학교 엘시스테마를 소개합니다!

형곡 엘시스테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2년도에 창단된 리코더 합주 동아리이다. 학교와 동아리 중심의 예술교육 초등 3~6학년 52명으로 구성된 형곡 엘시스테마는, 창단 7년째를 맞으며 현재까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전국 최고의 리코더 합주단으로서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함께 흘린 구슬땀으로 맺어진 결실

형곡 엘시스테마는 창단 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오는 날이면 매일 8시~8시 50분까지 합주 연습을 하며 구슬땀을 흘려왔다. 또한 또래도우미 티칭제를 운영하여 파트별로 멘티와 멘토가 서로 가르치며 연습함으로써 동아리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도 매우 강하다. 동아리원들의 이런 부지런함과 강한 소속감은 지금의 형곡 엘시스테마를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동아리 활동

형곡 엘시스테마의 꾸준한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원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신장시킴으로써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행사,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전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2018년 형곡 엘시스테마 정기 연주회

형곡 엘시스테마는 앞으로도 꾸준함과 부지런함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멋진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공동체, 「배우고 가르치고」를 소개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교원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보자!
「배우고 가르치고」는 2011년,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하는 인근 지역 교사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공통 관심사는 교사의 수업 능력이었다. 매월 2·4주 월요일마다 연수원 강의실에 모여 다양한 수업 방법을 나누고, 교실로 돌아가 실천하며, 실천 결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을 함께 하였다.

「배우고 가르치고」와 함께한 다양한 교육적 고민, 그리고 성장

「배우고 가르치고」는 특정 교육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론과 실천 방법에 대해 학기별, 또는 연도별로 집중 연구하는 교원 공동체이다. 「배우고 가르치고」가 함께해온 8년의 세월동안 협동학습 등의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백워드 설계 등의 교육과정 이론, 존 듀이 등 교육학자들의 교육철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려는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함께 나누는 고민의 주제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배우고 가르치고」가 지닌 가장 큰 힘이자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다.



「배우고 가르치고」와 함께한 2018년, 올해는 어떤 일이?

2018년에는 ‘맞춤형 수업과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통합’과 ‘온작품읽기’를 함께 읽고 공부하고 실천해 보았다. 책을 읽고 각 챕터별로 돌아가며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토 하였다. 그리고 각자 교실에서 실천한 교과별 이해중심수업 사례와 온작품읽기 사례를 나누고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는 공감과 조언을 해주었다. 공부한 내용이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교실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기 위해, 자체 연구 수업을 계획하여 직접 교실 속으로 들어가 수업을 참관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다. 11월에는 우리의 고민을 더 큰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 수업 나눔 축제에도 참가하였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서로 화합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하며 서로 성장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배우고 가르치고」의 선생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덕분에 연구회 회원들은 교실 안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 속에서 탈출하여, 고민하고 성장하는 교사로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공동체라는 푸근한 품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지지를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배우고 가르치고」는 앞으로도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 여행을 해 나갈 것이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가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교육가족들을 독려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0일(화)에는 '학교 업무부담 줄이기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 26일(목)에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 직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추진 과제에 대한 완성도·책임성·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과제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취임 초기부터 빠르게 이루어진 이러한 조치들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성과를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하고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8월 30일(목)에는 본청, 직속기관 및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선임 장학사 및 주무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교원들이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10월 1일(월)에는 학교 업무 정상화 기획팀을 발족하여 체계화된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개선·경감과 관련한 학교의 건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1월 6일(화)에는 지역·직렬별 일반직공무원 25명과 함께 대화의 날을 가짐으로써 학교 현장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교육에 있어 상부기관에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교사가 교수-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위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야만 한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자율과 소통의 학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학교 업무 정상화 관련 핵심 추진 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9개 사업 폐지·개선·이관• 학교 업무 정상화 기획팀 발족• 교육실무직원 역량 강화•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강화• 표준 업무 매뉴얼 개발 및 탑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공모 사업 운영 방식 개선• 관행적 컨설팅, 현장 점검 폐지• 3월·9월 회의 없는 달 운영•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 대회 최소화• 교직원 대상 의무연수 통합원격 연수 과정 개설 |
|---|---|



경북·대구교육청,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 '맞손'



교육정책 추진 비교·분석으로 교육의 질 제고·발전방안 모색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미래 사회 인재육성과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역사지리문화 공동체인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정책 추진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상호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프로그램 정보 공유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교육정책 정보 공유, 인사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벤치마킹, 우수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담겼다. 또 학생 체험학습 및 문화교류 증진,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등 양 교육청 교류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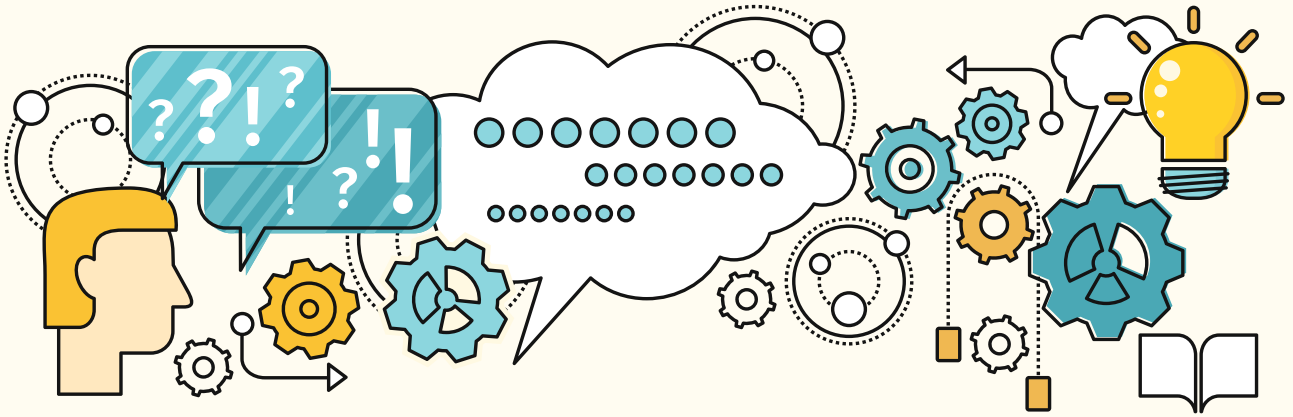
경상북도교육청은 나라사랑 프로그램인 ‘독도 체험 탐방단’ 상호교류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가족 수학 캠프’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인증 교육과정(IB)’공동 도입과 지역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민의식함양 사업인 ‘대구-경북 다시보기’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제안했다.



미래 교육 개척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과 대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옛부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 공동체로 상생 협력하며 살아왔 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양 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나날이 발전, 성장하기를 바라며 경북·대구 교육가족 모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기술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의 기반 구축

획일화된 학교 시설 환경을 학생의 인성 및 발달심리를 고려한 감성적인 학교 공간으로 바꿔 조성키로 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표준화된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미래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일자형의 긴 복도, 정형화된 사각형 교실, 통일한 학교 색채 등은 미래지향적 배움의 공간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써 획일화된 공간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어렵다.

인성·감성 갖춘 미래인재 양성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학교 공간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학생 감성과 인성 및 발달심리를 고려한 색채구성과 시설에 대한 관점을 교육청 중심에서 사용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중심으로 전환한다.

둘째, 성냥갑 형태에서 탈피, 학교별 특색 있는 공간 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테마가 있는 학교 숲을 조성한다.

셋째, 복합 공연장과 다양한 놀이휴식미디어 활용 공간을 마련하여 창의성을 키우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민간인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학교환경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육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교육환경 구축 내실화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과학수업의 내용과 방법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선도학교 운영 및 창의융합형 과학교육환경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운영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배움이 행복하고, 창의력이 길러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은 참여형 학생활동중심 과학 수업으로 이어져 다양한 대화와 토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세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인재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활동으로 ‘과학교실(40교)’, ‘창의·융합 과학동아리(60교)’, 연구 활동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연구 프로젝트반(12교)’,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으로 ‘과학교사 연구회(10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팀별 주제 탐구를 과학전람회 등과 연계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연구 성과가 과학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과학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운영

과학교과 교실수업개선·학생활동 중심수업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초등기본·심화과정 직무연수를 교사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발명교육, 과학전람회, 동아리지도 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연수가 개설되어 각종 과학경진대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운영방안, 현장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경진대회를 학교와 함께 준비

과학전람회나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등의 각종 경진대회는 교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서는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연수하기 위해 희망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전국대회 출품작이 선정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차례의 현장방문지도와 권역별 협의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최근에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과 교육정보화연구대회 두 대회에서도 대통령상 수상 및 전국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핵심역량인 상상하는 힘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전 구성원의 합의된 힘이 모여 이루어 낸 성과일 것이다.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가야할 길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항상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상주 지역에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매년 1~2개를 개관하여 경북 전체 권역별로 4개의 수학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수립했다.

수학체험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양성된 수학해설사와 수학체험센터 구축 운영 경험 등을 살려 경북 거점 센터 형태인 수학문화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는 포항 용흥중학교 폐교 시, 그 부지를 활용하려 한다.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또 다른 주요 정책으로 메이커 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메이커(Maker)교육은 학생들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다양한 도구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해 보고, 그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교육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경북교육 정책이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메이커교육 지원을 위한 경북메이커교육센터 설립,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첨단과학·디지털기자재를 갖춘 협력적 창작 공간 구축 및 운영, 학교 내 메이커 활동 공간 사업 등이 있다.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18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가 구미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하였다. 100여 개의 기업체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도내 54개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직업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 가득한 직업교육

지난 8월 22일(수) 상희학교 직업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상희학교 직업체험관은 체험·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카페 형태의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과학·디지털기자재를 갖춘 협력적 창작 공간 구축 및 운영, 학교 내 메이커 활동 공간 사업 등이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 강화

국내 고등학교 및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비진학·미취업자 학생 비율이 2017년 44.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되는 직종에 있어서도 대부분 제품제조, 식음료서비스, 청소세탁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으로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인재교육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교육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성장동력, 전략산업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술 강국의 선진 기술 습득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로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

경상북도교육청은 글로벌 기능·기술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글로벌 현장학습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 큰 발판이 되었고, 2017년에도 154명을 6개국에 파견하였다.

올해는 교육부 지정 글로벌 현장학습에 가장 많은 사업단이 선정된 교육청으로, 공업·상업·농업·가사·해양수산 전 계열에서 글로벌 기초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7개국(독일·네덜란드·호주·싱가포르·중국·일본·베트남), 13개 사업단에 176명 학생을 파견할 예정이다.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 교육

경상북도교육청은 프랑스 푸아티에시교육청과 독일 카셀시 교장협의회와 글로벌 현장학습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현장학습 유럽 점검단은 네덜란드 레이우아르던 농업교육기관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점검하고, 네덜란드의 첨단 실습장을 한국 농업계 특성화고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프랑스 푸아티에시교육청과는 농업계고 청년리더 1만 명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국제 교류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독일의 HBS(Herwig Blankertz Schule) 학습장을 방문하여 폭스바겐자동차 회사와의 Dual-System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점검하고 경상북도교육청-카셀시 교장협의회와 농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에 필요한 신규 현장실습 기관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협약하였다.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즐거운 유아교육

-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마을 공동체와 함께 노는 아이들 -



놀이가 밥이다

유아에게 놀이는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및 창의성 발달을 이루어 전인적 성장을 하게 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놀이가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더 이상 뛰어놀기보다는 각종 사교육과 인지적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유아교육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시대 유아들의 행복과 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놀이에 대한 재해석과 관심이 필요하다.

경북 울진군의 유아교육 학습공동체

울진군의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소인수 단학급과 혼합연령의 반을 운영하고 있어 유치원 간의 공동교육과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교사들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수업연구를 통한 동아리활동을 함께 해오면서 놀이중심 교육철학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과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놀이중심 유치원으로 선정되다

울진군 소재 노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장귀운), 기성초등학교(구산, 사동)병설유치원(원장 황용석), 매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도영진), 삼근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임종효)은 2018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놀이와 아이들의 심을 중심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자 실시한 '2018 방과후 놀이중심유치원홍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다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마을 공동체와 함께 노는 아이들

울진군의 6개 연합 유치원은 크게 숲마실, 바다 마실, 왕피천 마실, 고인돌 마실, 인형 마실이라는 다섯 가지의 추진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숲마실은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숲길을 탐방하며 금강송숲에 묻혀 있는 타임캡슐 이야기, 금강송 안아주며 대화하고 교감하기, 나뭇잎 커텐 만들기 놀이를 진행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용하는 방식을 배운다. 특히 기성면 구산리 해수욕장 솔밭 숲에서 '애들이 놀자!'라는 주제로 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울진에 거주하는 있는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놀이터를 열어 100여 명의 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을 초대하여 달팽이 놀이, 모험짚라인, 애벌레 딱지치기, 트리텐트, 원반그네 등의 놀이를 하였다. 그 밖의 바다 마실, 왕피천 마실, 고인돌 마실 등 울진의 자연환경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풍경 감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삶 속으로 가져오고자 다양한 놀이를 전개하여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형마실을 통해 유아들이 직접 만든 인형으로 지역의 기관과 협력하여 인형극 공연을 하는 등 유아들이 놀이의 창조자 및 놀이의 주체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1회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조성 UCC 공모전대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 '2018 방과후 놀이중심 유치원'에 선정되어 다양한 놀이를 유치원 현장과 고장에서 펼쳐오던 울진군의 유아교육학습공동체가 제1회 유아놀이중심교육문화조성 UCC에 공모하여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다. 12월 11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상금 500만 원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섯 명의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 공감으로 담아낸 세상풍경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회 수상 -

교육부지정 2018 정다운학교 운영을 한 기복초등학교(교장 김판귀) 5학년 오지섭 학생(특수교육대상)은 올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2차례 수상하였다.

범국민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10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에 '흔들며 어울리는 사회'라는 작품으로 사진부문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가치확산 및 평화통일 기원·그림대회 및 UCC공모전'에 '평창이 준 또 하나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참가하여 초등부 UCC부문에서 2차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학생은 임용수 교사의 지도하에 '제11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에 '우리 아빠는 멋진 악당'이라는 책을 읽고 쓴 독후감으로 장려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 경북 장애 학생 e페스티벌' 키넥트볼링 부문에서 동상, '제40회 경상북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제10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흔들며 어울리는 사회〉는 학교운동회에 참석하신 학부모와 지역주민, 운동회의 주인공인 학생들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응원단장의 울동에 맞춰 다함께 온몸을 좌우로 흔들며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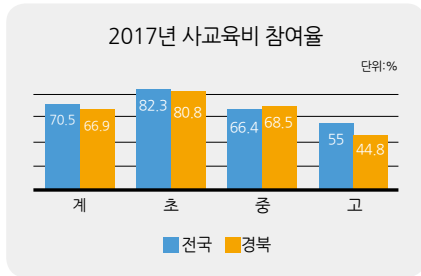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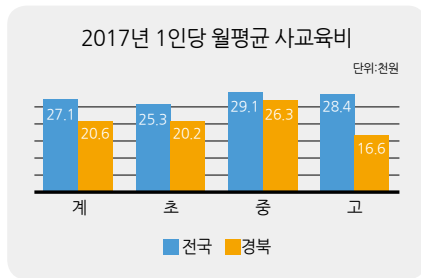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가치확산 및 평화통일 기원·그림대회
및 UCC공모전



〈평창이 준 또 하나의 꿈〉 현장체험 학습으로 평창동계 패럴림픽을 다녀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선수들의 경기모습과 시상식 등을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18년 3월 교육부 및 통계청은 2017년도 사교육비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2.7%가 증가하였다. 한편 경북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6,000원, 참여율은 66.9%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및 취미·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대된 반면 선행학습 및 진학 준비를 위한 교과 사교육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학교 및 EBS영어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수 년 전부터 학생예술 동아리 운영, 악기 지원 사업, 학교

예술 강사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 강사 지원, 주말 체육 학교 등을 통해 예술·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초, 중 고교에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적 여건을 해소하여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방과후프로그램을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하여 구축하였다.

경북 도내 인평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사교육비 절감 우수사례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정말 유용하다며 매년 방과 후 활동을 잘 활용하니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이 확실히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체능 이외의 프로그램도 많으니 방과 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2018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인터넷)지원비 등 교육비 감면을 지원하는 교육 복지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도 탈락 없이 2018년 한 해 동안 교육비 감면 지원을 받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이나 제도를 좀 더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을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복지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경상북도교육청의 응비관에서 2019년도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지, 또 기금예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무엇을 신경써야 할지에 대해 안내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이러한 기금이 최대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비 지원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교육비 부담 없는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소외가 없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2019년에도 경상북도교육청과 사군의 지역교육청, 학교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복지 실현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산·어촌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복식학급 40% 감축'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복식학급 2022년까지 40% 감축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학생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78학급인 도내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2022년까지 175학급으로 40% 감축하기로 하였다.

도내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가 학년별 5명 이하(2개 학년 10명 이하)이며, 2018년 현재 초등학교 509교(분교 포함) 중 159교에서 278학급 1,480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현행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2019년에 학년별 4명 이하(2개 학년 8명 이하)로 낮추어 43개의 복식학급을 단식학급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학년별 3명 이하(2개 학년 6명)로 하향 조정하여 현재 278학급에 이르는 복식학급을 175학급 수준으로 줄여 단식학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이 도시지역 학생과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복식수업에 따른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와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를 말한다.

농산어촌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학교 학생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작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작은 학교 학생 수 증대를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나아가 소규모 학교가 폐교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다.

작은 학교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또는 초 6학급, 중 3학급 이하 학교 중 희망학교를, 큰 학교는 시·읍지역 200명 이상의 학교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에 지역별로 초등학교 1개 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학교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감성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요



경북 녹색어머니회, 안전 교육 환경 조성 앞장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개최 -



경상북도교육청은 11월 19일 녹색어머니회원을 대상으로 ‘제7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 촉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도내 22개 지역 녹색어머니회 회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자녀 교육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이순열 교수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동국대 사공정규 교수의 ‘초등학생교육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경운대 윤복만 교수의 ‘웃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자’라는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2부 행사에서는 유공자 감사패 수여 및 녹색어머니활동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365일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상북도교육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약 체결

- 산림생물자원교육 활성화 협력, 진로체험 기회 제공 -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 경상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산림생물자원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생물자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산림 과학 환경교육 콘텐츠 발굴, 자유학기제 직업·진로체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림생물자원 교직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학생들에게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전 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외체험활동과 산림생물자원과 관련한 교원연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도청 지역 학부모와 함께한 시간



경상북도교육청은 11월 28일에 웅비관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 지역 학부모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와 현장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역주민 및 교육공동체와의 만남,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90분간 진행되었으며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후 신도청 지역 교육 현안 과제에 대하여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은 교육감과 함께 ‘신도시 유아 수용, 신도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도시 중학교 신설, 신도시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등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무척 만족하였고 아울러 교육공동체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에는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연 8회에 걸쳐 권역별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교육정책 및 지역 교육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Town Hall Meeting

교육감이 지역을 찾아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역주민,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해 소통하는 회의



경북교육과 함께하는 교육위원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합리·효율·열정적 평가속에서 치뤄져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경북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경북개발공사, 경북체육회,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행복재단 등 84개 기관(현장 65개)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초선 도의원 30명과 민주당·무소속의원 19명이 맹활약을 펼치고, 경험 많은 다선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현장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년에 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의 활약을 보여 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상북도교육청, 새해 예산 4조 5376억 원 확정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6% (4341억 원) 늘어난 4조 537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자원운용 1조 9362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2766억 원」, 「교육복지지원 423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2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80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93억 원」, 「평생·직업교육 151억 원」, 「교육일반 4029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에는 초·중·특수학생 전체 무상급식 확대 시행 614억 원, 고등학교 다자녀가정학생 급식비 지원 63억 원, 포항·경주 지역 학생 지진보호장비 지원 14억 원, 학교 냉난방비 지원 247억 원이 반영되었다. 또 학교공기정화장치 임차 지원 19억 원,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66억 원, 경북메이커교육센터 구축 30억 원,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50억 원이 편성돼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

영양초등학교(교장 오원우)는 11월 19일(월) 초등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주최하는 제16회 경상북도 청소년의회교실을 체험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의회에서 평소 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이 궁금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것으로, 영양군에서는 영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 운영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의식함양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의장 선출·조례안 건의 등의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공정한 시민 의식을 체험했어요!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 실시 현황

구분	운영일	학교명	구분	운영일	학교명
1기	11.14.(수)	함창초(79명)	5기	11.30.(금)	영천초(93명)
2기	11.19.(월)	영양초(92명)	6기	12. 3.(월)	부구중(39명)
3기	11.23.(금)	영해고(58명)	7기	12.12.(수)	왜관중앙초(63명)
4기	11.27.(화)	다산초(73명)	8기	12.17.(월)	의성초(99명)

시나브로 교사가 되어가다

-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

지수민 약목초등학교 교사

어떤 장면을 보고 가슴 찡한 적이 있는가? 혹은 그 경이로움에 감탄해본 적이 있는가?

밀린 업무에 정신없는 오후 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이 내린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아이들이 힘찬 웃음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첫 출발을 시작한 약목에서의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자주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얼마 전, 시동아리부 학생들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날, 시집 제목으로 탄생한 3학년 학생의 시 한 편이 유난히 제 마음을 끌어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시는 없다/ 쓸 게 없어도 시는 생긴다/
없어도 있고, 있어도 있다/
잠을 자도 시는 계속 있다 / 없는 것도 시고, 있는 것도 시다/
나는 시를 마법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없는 시는 없다, 약목초등학교 3-2 조율)

저는 2017년 9월에 첫 발령을 받은 새내기 교사입니다. 첫 제자였던 그 아이의 시를 읽으며 교사로서의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시는 없습니다. 하늘엔 하늘로 된 시가 있고 땅에는 땅으로 된 시가 있습니다. 강에는 강으로 된 시가, 바다에는 바다로 된 시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 모두가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시는 우리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땅도 강도 바다도 다 자신의 모습 안에 시를 뽐뽐 감추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우리 학생들도 한 편의 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학생은 없습니다. 똑같은 교실 속 똑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책을 보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릅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 모두가 다릅니다. 교실 속 감추어진 학생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숨어있는 아름다움과 감동과 진실과 슬픔과 눈물과 웃음과 기쁨을 자신만의 언어로 옷을 입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첫 출발을 시작한 이곳, 때론 혼자 감당하기엔 힘든 일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고 교실 문을 활짝 열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시의 눈으로 아이들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한 편의 시가 언젠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해 가슴 찡함을 선물할 그 날을 위해 시 올림 가득한 약목에서 저는 시나브로 교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서 열정적으로 헌신·수고한 공로

제44회 경상북도교육상

수상자 5명 선정·표창

배태숙

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배태숙 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는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3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교육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운영, 꾸준한 연찬 활동과 장학자료 개발로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 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 꾸준한 사회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이현숙

효자초등학교
교장



이현숙 효자초등학교 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교육철학으로 40년 7개월간 창의인성교육, 독서·토론교육, 자기주도학습과 부모교육, 각종 위원회 및 컨설팅단 활동, 교실수업개선 및 학교구성원의 핵심역량 강화와 창의적인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북 초등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권오일

녹전초등학교
교사



권오일 녹전초등학교 교사는 17년 10개월간 학교교육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학생 지도를 통해 전국대회에 다수 입상하는 등 경북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연구시범학교 주무교사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교원 연수 강사 및 각종 대회 심사위원, 자료개발 위원 활동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송익수

사동중학교
교감



송익수 사동중학교 교감은 평소 국가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38년 10개월간 학생문예활동 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중등교육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생활지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등 경북 중등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규일

포항여자고등학교
교장



최규일 포항여자고등학교 교장은 투철한 교육관으로 26년 6개월간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어교육발전에 기여하였고, 이후 11년간 장학사, 교감, 교장으로 재임 중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 우수학교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북 중등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랑스러운 경북교육!

[2018년 하반기 주요 성과]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 특성화고 선수단 종합 1위

- 금 6개, 은 16개, 동 10개, 우수상 18개, 장려상 30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4위

- 금 71개, 은 84개, 동 104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 경북과학고등학교 3학년 최원찬



2018년 전국 학생 세대공감 공모전 전국 최고 실적 거양

- 전국 총 18명 입상자 중 경북 8명 입상
- 평해초등학교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제26회 전국과학동아리활동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풍각중학교 3학년 이선호정은지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 1등급 10편, 2등급 6편, 3등급 5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우수 기관 수상



제12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12년 연속 최다 입상 교육청

- 전국 입상작 61편 중 24편 입상
- 은풍초등학교 원시현 교사 대통령상 수상



2018 전국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최고, 최다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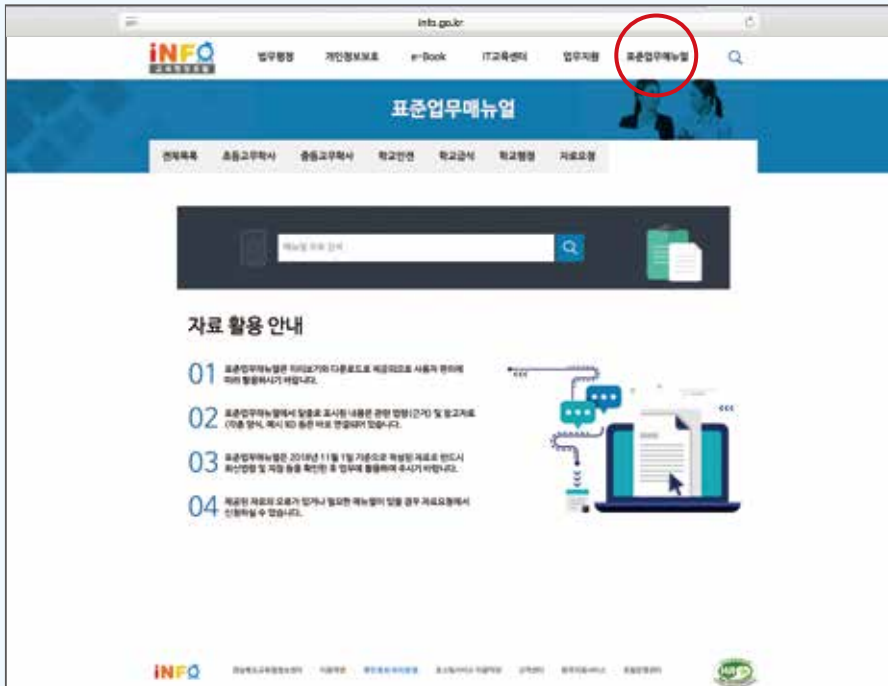
- 교원(1등급 5편, 2등급 4편, 3등급 8편)
- 기관(최우수 2개, 우수 1개, 장려 3개)

선생님!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여기 **표준업무매뉴얼**이 있어요!

◆초등중등교무학사, 학교안전, 학교급식, 학교행정의 5개 부문, 32개 영역, 176개 매뉴얼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표준업무매뉴얼**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 교육행정포털 / **표준업무매뉴얼**
(홈페이지 주소: <http://www.info.go.kr/standardManual/intro.do>)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천리)
TEL. 054-805-3000 www.gbe.kr



발간등록번호
경북교육 2018-29